

상록탑

# 뜨거웠던 평창의 기억, 패럴림픽은?

‘캐나다 CBC 125시간, 영국 채널4 100시간, 미국 NBC 94시간, 일본 NHK 62시간, 한국 KBS 18시간.’

평창 동계패럴림픽(평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나라별 평창패럴림픽 경기 편성시간’이다. 이 한 줄이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방영시간 뿐만이 아니다. 타국과 많게는 약 7배가 차이 나는 한국의 방영 시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패럴림픽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17일 동안 국내 지상파 3사는 총 150시간 이상, 하루 평균 9시간 넘게 경기를 편성했다. 불과 12일 전까지만 해도 온 국민이 아침부터 텔레비전 앞에 앉아 여자 컬링 결승을 응원했고 늦은 밤 화려한 폐막식까지 본 후야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 후 국민들은 패럴림픽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마음속에서 평창을 떠나보낸 듯하다.

평창패럴림픽에 대한 무관심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관심이 아직도 저조함을 나타낸다. 혹자는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한다. 과연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상대적’인 목표치만 채워 나가면



김승희  
사회·문화부 부장

“  
꺼져가는 관심 속 패럴림픽,  
장애 인권에 대한 의식 필요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장애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물론 나 또한 비장애인에 속하지만, 전공과 관련해 만나는 장애인들 혹은 그들의 보호자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고 성인 장애인들의 경우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도 종종 보았다.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한결같이 느낀 것이 있다. 장애인들에게는 높은 장애인연금, 장애등급제 폐지보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편견 없

는 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아왔다. 그리고 아직도 각 시·도와 여러 기관에서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강연을 실시하거나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회에서 흔히 약자로 여겨지는 장애인들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려는 그들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과연 이 방법이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란 고민도 종종 해본다.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절대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한 그렇다. 계단식 강의실에 따분하게 앉아 듣는 장애인식교육보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패럴림픽 경기를 응원하고, 공모전에 출품할 콘텐츠를 만들기보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해 소소한 대화를 나누보는 것은 어떨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동안 단 한 순간이라도 둘 사이에 놓인 ‘장애’라는 벽을 잊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며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야 비로소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학생 칼럼

# 의무교육, 10대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는 구인구직을 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이 단절되는 노인 이야기다. 작중 그가 구직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자 직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겪는다. 우리나라 역시 인터넷 사용법을 모를 경우 불이익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블레이크와 같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마트 문명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민주주의에서 동등한 시스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세대 차이, 특히 지식의 세대차이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가? 우리에게 교육이란 놀라운 수단이 있다. 우리는 6년의 의무교육과 6년의 중등교육 과정을 거쳐 성장한 후 사회로 나왔다.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문명에 적응한 것이다. 중장년층 역시 달라진 세대와 문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필자는 기성세대의 재사회화를 위한 중장년, 노년의 의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블레이크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것은 무능함이 아닌 교육의 부재로 인한 무지였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문명을 그들 역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혜택으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은



이서영  
조소·16

“  
만인이 문명의 혜택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수반돼야

사라질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농경지의 스마트화 등 기성세대가 많은 직업군에 더 많은 미래문명의 접목이 가능해질 수 있다. 중장년층이 현대기술을 정확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면 많은 부분에 기술이 접목되고, 더 많은 기술이 생겨나고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이끄는 교육환경의 고착화가 해소되고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날 것이다. 기성세대가 이끄는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그 기성세대가 바뀐 사회를 체험하고 그에 맞춰 교육을 개

선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그들을 현 전문가들이 더 정밀히 교육해야 한다. 그를 통한 교육의 변화는 젊은이들이 고착화된 교육을 받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자의 경우 지식 변화를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개선하는 등 자신의 분야를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무교육은 강제성을 띠지만 공정성도 가진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며 그 사회에 살아있는 모든 민중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이루어야 한다. 당장 우리 사회에 선 교육의 고착화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년을 걱정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인력인 50-60대 인구의 고착화는 방치하고 있다.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이 변화를 맞이하면 변화한 세대에 대해 적대받고 결국 중장년들은 그들만의 섬으로 고립될 것이다. 그런 현상은 결국 차별을 낳고 발전을 막을 것이다. 이것은 중노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의 중년과 노년뿐만 아니라 현재 청년들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의 교육차별을 사회적 차원에서 막아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 교육 수준을 상향평준에 두고 나아가 더 나은 문명을 누릴 수 있게, 공정하게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며 나아지려 노력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또, 전문 작가처럼 그림을 잘 그려서 사람들이 감탄했으면 하는 마음은 실망만 쌓이게 한다. 반면에 바쁘게 하루를 살다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면 생활이 풍요로워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열심히 운동을 했다는 것, 평론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영화를 공부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으로 취미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얻은 결과는 기분 좋은 행운일 뿐,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속 각박한 세상을 버티며 산다.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취미에서도 위안을 얻지 못한다면 외롭고 지치는 삶일 것이다. 우리 모두 취미가 취미이기에 가지는 특별한 가치를 누리는 진정한 취미생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승아(건축공·16)

사설

# 소통의 가치, 망각하지 말아야

올해부터 화학신소재공학과(화학신소재) 학생들은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ABEEK)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월 화학신소재 홈페이지에는 해당과에서 ABEEK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공지글이 올라왔다.

ABEEK 비신청에 화학신소재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는 지금까지 해당 프로그램 때문에 수강신청이나 시간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ABEEK 비신청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지금껏 확실히 ABEEK 프로그램대로 교과과정을 밟아온 3.4학년의 경우 인증을 눈앞에 두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나 다를 게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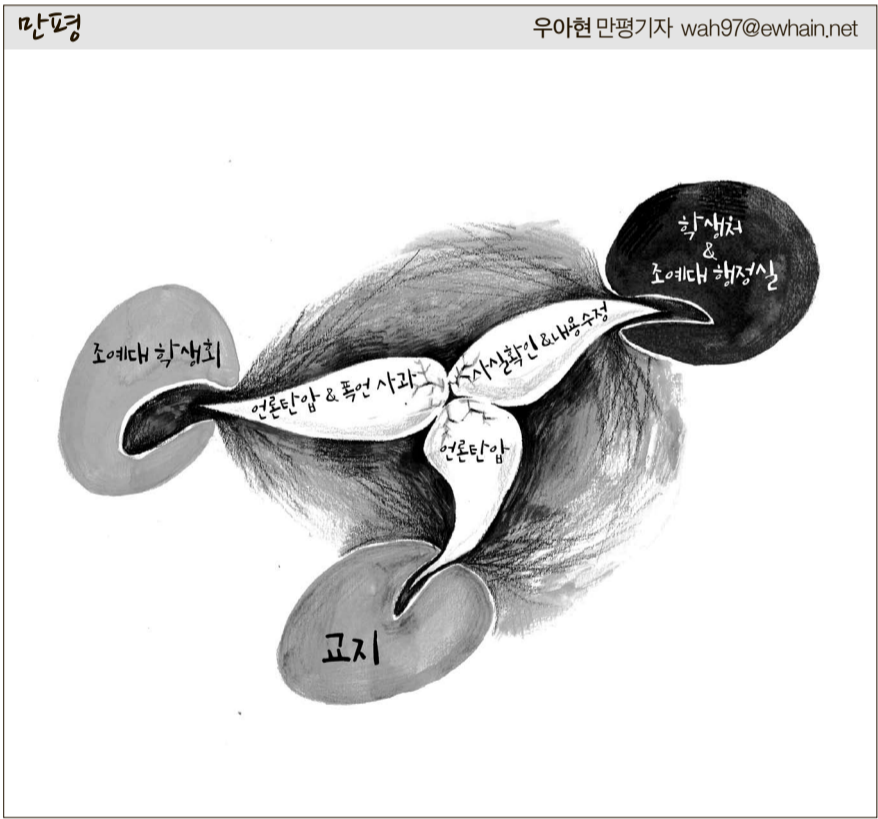
그러나 ABEEK 비신청에 찬성하는 반대하는 학생들이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은 동일하다.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학신소재는 ABEEK 비신청 이유에 대해 함구했다. 학과장은 “결정된 사안에 대해 학과장이 인터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학신소재 교수 대부분이 해당 사안에 대해 답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전했다. 본교 공학교육인증센터 또한 이는 교수회의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유를 모른다는 말 뿐이었다.

프로그램 변경 및 결정은 사실상 학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학생이 개입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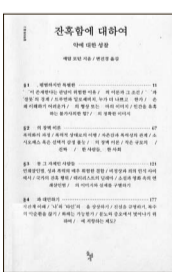
명분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 교과과정 변경이 어떠한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것인지, 그러한 변화 속에는 어떠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알 필요가 있다.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이기 때문이다. 비록 결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더라도, 교과과정 변경의 과정 및 배경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을 권리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학신소재는 이러한 학생의 권리를 간과했다. “수강신청에 참고하길 바란다”가 화학신소재 측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한 정보의 전부였다. 비록 ABEEK 비신청을 받기는 학생들의 의견이 전반적이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의 결과가 불투명으로 가득한 과정을 덮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 화가 2016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외쳐온 ‘민주적 소통’ 등의 가치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이번 화학신소재의 일방적인 결정은 여전히 이화 안에 잔재하는 불통을 보여줬다. 학생들이 교과과정이나 바뀐 배경에 대한 정보조차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작은 불통의 불씨가 언제 다시 한 번 이화를 위기로 몰아넣을지 모르는 일이다.



금주의 책



**잔혹함에 대하여 : 악에 대한 성찰** - 애덤 모턴 지음, 파주·돌베개, 2015. 실종, 아동학대, 연쇄살인 등 잔혹한 범죄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런 ‘악’을 접할 때마다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의 특수집단으로 분류합니다. 저자는 악의 발현은 악인의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 본연에 내재된 폭력 억제 기제를 넘어서는 순간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며 누구에게나 발현될 수 있는 악의 평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악을 단정하고 비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고 올바른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 더욱 성숙한 삶의 자세를 얻길 바라며 이화인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책 / 4층 일반자료실 170 M846on한]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궁중무용무보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1986-2009
2	미생 :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2-2013
3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Rowling, J. K.	문학수첩	2003
4	Behavior management : positive applications for teachers 7th ed	Zirpoli, Thomas J.	Pearson	2016
5	동양철학 스케치	김선희	폴빛	2009
6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Rowling, J. K.	문학수첩	2005
7	(이기적) 2014) 정보처리기사 : 필기 기본서	최희준	영진닷컴	2013
8	신과 함께 : 저승편 : 주호민 만화 개정판	주호민	애니북스	2017

여론광장

# 취미가 취미 되는 법

취미가 ‘취미’이기 어렵다는 것을 많은 취미 생활인들이 공감할 것이다. 나 역시 취미 발레인으로서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사전적으로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를 위하여 하는 일’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취미는 종종 스트레스가 된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취미 생활이 어느 순간 재미없고, 힘들고, 허무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취미는 좋은 삶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취미를 취미로 살릴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왜 우리는 취미를 못 즐길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취미의 목표를 그 행위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과 같이 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직업이지 더이상 취미가 아니

다. 그렇기에 취미 생활을 하면서 빠르고 놀라운 성장을 욕심내는 것은 무리다. 대신 우리는 취미생의 특권을 누리려 한다.

취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단순히 즐길 수 있게 됐다. 그 행위를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취미를 진정으로 즐기기를 위해 우리는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결과를 중시하는 시각으로 취미 생활을 바라보면 취미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시간 낭비일 수 있다. 그러나 취미는 그 자체를 즐기기를 위한 일이므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발레를 배워서 발레리나 같은 몸매를 갖고 테크닉을 구사하려는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부른다. 그와 달리, 발레 동작을 배우